

수능 과목, 유불리 떠나 진로 기준 선택해야

국어·수학 영역 '공통과목 + 선택과목' 구조로 변경 등급 점수 예측 어려워져 수험생들 북북북 심화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선택과목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과목 선택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진로를 위주로 과목을 고르라고 수험생들에게 조언했다.

평가원은 최근 2022학년도 수능 안내자료 3종을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공개하고, 국어와 수학 영역 성적 산출 방법을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올해 11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변경된다. 지난해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에서만 선택과목제가 도입됐는데, 이제는 주요 과목으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는 것이다.

수능 성적은 등급과 백분위를 포함한 표준점수로 제공된다. 최종 표준점수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공통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선택과목 집단별로 공통과목 평균 점수를 산출한 뒤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선택과목 집단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이 같은 방식대로라면 두 학생의 공통과목 원점수가 같고 선택과목 원점수가 같더라도 선택과목 이 다를 경우 최종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두 학생의 선택과목이 같고 원점수의 합(공통과목 원점수+선택과목 원점수)이 동점인 경우에는 공통과목 원점수가 높은 수험생의 최종 표준점수가 높게 산출된다. 공통과목 배점 비율이 높기 때

문이다.

이미 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에 따라 원점수가 같더라도 표준점수가 10점 안팎 차이가 나는 북북북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선택과목제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북북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평가원은 해당 점수 산출 방식과 관련해 "공통과목+선택과목"의 구조를 채택했던 과거 수능에서도 적용해 대입 전형에 무리 없이 활용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평가원도 점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고 상당수는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수험생의 북북북 확대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평가원은 "영역의 최종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고 그 요인들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과목 선택을 놓고 유리와 불리를 따

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여러분의 진로를 먼저 고려한 후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입시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25일 치러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선택과목제 확대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나타났고 혼란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수험생 1만1326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결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83점을 맞고도 2등급으로 추정되지만 '미적분', '기하' 선택 학생은 1등급 내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고3 학생 중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등급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전체적으로) 수능 등급 점수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일자리센터 학과별 직무동아리 온라인 OT

호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김은아)는 2일 '2021학년도 학과별 직무동아리 지도교수와 대표 학생을 대상으로 zoom 활용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학과별 직무동아리'는 동일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 간에 직무정보를 공유하며 직무 이해도를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세부 운영계획서 및 PT 면접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학과를 비롯한 총 18개 학과가 선정됐으며, 동아리 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지원된다.

'학과별 직무동아리'는 직무관련 멘토링 특강, 해당 직무 기업탐방, 직무 스터디 등 월 2회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며, 자기주도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 'NCS 취업전략 프로그램' 운영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2~4학년 재학생 37명을 대상으로 'NCS 취업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단계 비대면 특강 ▲2단계 온라인 모의고사 ▲3단계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의 순으로 지난 달 17일부터 3주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기업별 NCS 출제 유형에 따른 학습 전략을 세우고 10개의 직업기초능력 개념 특강, NCS 유형별 분석 및 문제풀이, 개인별 학습법 멘토링 등을 통해 NCS 필기시험을 준비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미안마 국민 연대와 지지 응원 메시지 SNS에 올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5일 미안마 국민연대에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담은 응원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미안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안마 거리에서 매일 총성이 이어지고 있고, 뉴스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평화시위에 충격을 가하는 미안마 군인과 경찰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지만 군부는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위 진압에 기관총까지 동원,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미안마는 1980년 오월 광주와 무척 닮았다. 1980년 오월,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전남도청을 지켰던 광주의 시민군과 미안마 국민들은 같은 신념을 품고 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호남 신산업 성장 동력 AI 기반 e모빌리티 인재 양성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AI(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e모빌리티 인재 양성을 통해 호남지역 신산업 성장 동력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동강대 산학협력단(단장 김명수)은 최근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사)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회장 조병철)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동강대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블루 트랜스포트'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와 뜻을 모았다.

앞서 동강대는 영광군-한국자동차연구원과도 협약을 맺고, 영광 대마산업단지에서 스마트팩토리 및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동강대 기계자동화과와 전기과 학생들은 지난해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가 마련한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대마산업단지 내 캡시스, 대풍EV자동차 등 e-모빌리티 분야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또 지난해 11월 김준성 영광군수와 영광군의원 등이 동강대를 방문해 교육 인프라를 돌아보고 지자체와 대학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박차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이 5일 총 11억여 원을 투입해 구축한 최첨단 스마트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복합커뮤니티 문화공간 등을 직접 현장방문해 점검한 가운데 호심관 8층 스마트강의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교육시설은 호심관과 성실관, 행정관에 최첨단 기자재를 갖춘 스마트강의실 11개와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상담실 등 총 22개소다. <광주대 제공>

조선대, K-Move스쿨 2년 연속 취업률 100%

조선대학교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 연수사업인 '조선대학교 K-Move스쿨'이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달성했다.

K-Move스쿨은 외국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

년에 구인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통해 직무 역량 및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 후 미국 등 해외 취업과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조선대에서 운영하는 K-Move스쿨 연수과정은

해외취업 실무경험·취업 연계 5년 간 73명 미국 취업 효과

연수교육(어학, 직무교육 등)을 약 6개월 간 수강, 이수하며 사전에 확보된 해외 취업 처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해외취업을 결정한다. 이후 미국 각지에서 1년 이상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연수생의 역량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과정별 전공 자격은 상경계열은 경영사무, 마케팅, 회계 등 연수생의 전공과 관련된 사무직으로 취업하고, 공학계열은 품질관리분야로 취업한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5년 간 73명의 학생들이 미국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도 4기 참여 학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 조선대학교는 전담 직원을 채용해 연수생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